

오피니언

김준의 갯살이



문어와 축의금

일주일이면 결혼식 청첩장을 몇 개씩 받던 시절이 지나갔다. 이젠 청첩장보다는 부고를 받는 횟수가 더 많아졌다. 나이 들어간다는 증거다. 그 사이 새치는 흰머리가 되어 미장원에서는 염색을 하지 않을 거라고 묻는다.

결혼식이건 장례식이건 봉투를 들고 가는 것이 상례이다. 얼마나 넣을까. 고민스럽다. 지금은 딱 정했다. 둘 중에 하나다. 인사자례만 하면 되는 정도인가. 생활을 같이하는 사이인가.

하루에 객선이 두 번 달은 완도의 외판섬. 그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만났다. 원 가구를 사는 작은 섬마을이다. 김양식이 활발했던 시절에는 100 가구가 웨덴 넘게 살았던 마을이다. 지금은 몇 가구가 소규모로 전복양식을 할 뿐 모두 나아가 들어 농사와 어업을 소일거리로 하는 정도이다.

섬마을 작은 골목길을 배회하다 걸음을 멈추었다. 돌담 옆 전봇대 꼭대기에 대롱대롱 매달린 열심지로 만든 대나무 위에서 가을햇볕에 꽂고 꽂고 말라는 생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열 마리씩 꼬챙이

에 꽂힌 문어가 대나무 끝에 걸려 있었다. 이것을 ‘꽃대’라고 불렀다. 꽃대를 세 개나 걸어 놨으니 문어가 삼십마리나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부시리가 다섯 마리, 장어가 네 마리나 되었다. 대나무 걸대에 꽂대가 두 개, 전봇대를 이용해 꽂대를 세 개나 걸었다. 이쯤이면 생선가게를 차려도 될 성 했다.

꽃대를 걸대에 걸어 생선을 말리는 모습이야 섬마을이나 어촌마을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림이 너무 좋아 한참을 쳐다보다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마침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집 주인과 눈이 마주쳤다. 별이 좋은 마당에 함께와 들깨, 그리고 육수수도 자리를 잡고 있었다.

칠순의 노부부는 새벽 둘 때에 맞춰 바다에 나갔다가 통발에 든 쇼팽이 열댓마리를 잡았다며 보여주었다. 그것을 굽은 소금에 버무려 그릇에 담았다. 한 달 후에 먹어야 제 맛이 난다고 일러주었다.

방안에는 고춧가루 다섯 보따리가 가지런히 둑여 놓여 있었다. 아들 넷에 팔 하나, 자식 다섯을 둔 달북한 노부부였다. 김양식을 해서 자식 두 명은 대학을 보냈지

만 오십대 중반에 몸이 아파 나머지 셋은 고등학교까지만 보냈다며 아쉬워했다.

“문어는 제사에 쓸려고 하신 건가요?” 전봇대 꼭대기에서 말라가고 있는 문어를 가리키며 물었다. 동해안 어촌마을에서 제물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문어이기 때문에 넘겨짚어 본 것이다.

“아니어 식 맞춰 놓은 것이여.” 처음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다시 물어 서을 조카 결혼식에 쓸려고 맞춰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 맞춰 놓은 것이여”라는 말은 “결혼식에 쓸려고 주문받아 놓은 것이여”라는 말이었다.

오전 10시 40분, 새벽 둘 때에 맞춰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온 노부부의 아침 식사시간. 상 위에는 반쯤 말린 생선이 올라와 있었다. 입안에 군침이 돌았다. 아침에 김밥 두 줄을 쌈들고 새벽녘에 나선 걸을이라 시장기는 면혔지만 밥상머리에 앉으니 어쩔 수 없었다.

“완도 바다에서 직접 잡아온 것이라 겁나게 맛있네. 어이 밖씨 잘 먹었어.” 아마도 노부부의 축의금은 문어가 될 것이다.

이유다.

섬에서 나고 자란 노인들에게 서울음식이 입맛에 맞을 리 없다. 또 고향을 떠나 객지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고향 맛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자신 결혼식을 앞둔 부모가 고향 어른께 특별히 부탁을 했던 것이다. 노부부는 한 물 두 물, 물 때를 맞춰 잡아온 문어를 정성스럽게 꽂대에 말렸다.

며지않아 저 문어는 서울 구경을 할 것이다. 그 길에는 문어 외에 부시리와 깃장어 등 말린 생선도 동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고향사람들을 만나리라. 짭짤하게 간질을 한 생선과 꾸덕꾸덕 말린 문어로 요리를 해 놓으면 다들 한 마디씩 할 것이다.

“완도 바다에서 직접 잡아온 것이라 겁나게 맛있네. 어이 밖씨 잘 먹었어.” 아마도 노부부의 축의금은 문어가 될 것이다.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칼럼



아름다운 지도자

“가위, 바위, 보 하는데 가위, 바위 가지고는 아니 되고 보자기야 된다. 포옹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한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일 것이다.

또 ‘정산종사 법어’에 ‘옛날 초(楚)나라 사람’이 실물을 하매, 초왕은 “초인이 없으면 초인이 얻으리라” 하였는데, 그 후 공자께서는 “사람이 익으매 사람이 얻으리라” 하셨고, 우리 대종사께서는 “만물이 익으매 만물이 얻으리라” 하시었으나, 이는 그 주의 발전됨을 보이심이라. 초왕은 나라를, 공자는 인류를, 대종사는 우주 만물을 한집 안 삼으셨으나니, 이가 곧 세계주의요 일원주의니라”고 했다.

초나라 왕은 초나라 사람만이 자기의 권속이고, 공자는 인류를 권속으로 삼았다. 운인류를 권속으로 삼지는 못하더라도 작은 나라 정도는 한 권속으로 삼을 줄 아는지도 자가 그립다.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 만이 자기의 국민이고,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국민이 아님을 알게 된다. 아름답다. 원용회통하다, 원만하다는 뜻이다. 둥근 것은 아름답고 모난 것이 둋난 것인 뜻도 있다니 출처야 정확히 모르지만 그럴듯한 말인 것 같다.

올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

도자를 선출하는 해이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나 이를다운 지도자를 원하지 않을까. 아름다운 지도자란 동글고 모나지 않아서 원만한 지도자이다.

원불교 정산종사는 ‘한 물안 한 이치’에서

아닌가. 영남 사람만이 국민이고 호남사람은 국민이 아닌가. 특정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이 자신의 국민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국민이 아닌가. 그러한 심법을 가질 수 없다면 한 나라의 지도자로의 자격이 없지 않을까. “자타(自他)가 없어야 세계의 지도자가 된다”는 말이 가슴 깊이 다가온다.

정산 종사는 옛날 “어느 이튿날 화가가 말하기를 ‘명화의 기이한 공은 눈에 있다’ 하셨는데 그것은 눈이 사람의 용모 가운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이니 이 마음의 사용 여하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좌우되며, 가장 사회 국가 세계 어느 곳을 물론하고 그 지도자의 마음 여하에 따라 발전과 퇴보가 좌우되는 것이니 아무쪼록 마음을 바르게 하라”고 하며 지도자의 마음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지도자가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움직이는가에 따라 세계는 그 판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볼 수 있었다. 지도자를 위한 축의금은 높은 수준으로 높아졌다. 모든 국민을 포옹하고 원만한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지도자를 뽑고 싶다. 〈원불교 신창교당 교무〉

기고



임형택

술에 취하기보단 가을에 취합시다

은 ‘주도유단’이라는 글에서 술을 논하여 술마시는 모양과 사람을 18단계로 분류했다.

1단계는 ‘부주’라 하여 술을 아주 못 마시는 않으나 안 마시는 사람 그리고 2단계는 ‘외주’라 하여 술을 마시긴 마시나 술마시기를 겁내는 사람으로 나누었다. 3단계는 ‘민주’로 마실 줄도 알고 겁내지도 않으나 취하는 것을 민망하게 여기는 사람, 4단계는 ‘은주’로 마실 줄도 알고 겁내지 않고 취할 줄도 알지만 돈이 아워서 혼자 술에 마시는 사람, 5단계는 ‘상주’로 마실 줄도 알고 좋아도 하면서 무슨 익숙이 있을 때만 술을 마시는 사람을 통칭했다. 6단계는 생활습관을 위하여 술을 마시는 ‘색주’, 7단계는 잠이 안 와서 마시는 ‘숙주’, 8단계는 밤마다 술을 드는 사람을 통칭한다. 9단계는 ‘주종’(술을 보고 즐거워하되 이미 술을 마실 수 없는 사람), ‘일반주’(술로 말미암아 다른 술세상으로 떠난 사람) 단계에 이른다고 한다.

당대의 최고시인이자 주선으로 불리는 이태백도 ‘석잔 술에 큰 도를 통하고 한말 술이면 자연과 하나 되나니 취하고 취하여 얻는 즐거움을 깨어 있는 이에게 전하지 마라.’라고 술에 대해 노래했다. 그래서인지 깊어가는 가을밤 관내 주류

전문 업소들은 새벽까지 성업 중이다. 특히 이번 달에는 영업시간이 야간인 관계로 광주시에서는 위생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야간 주류 전문 업소 172개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술과 더불어 먹는 앤류 등에 대해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무사고·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생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혹자는 식중독균을 도수 높은 술을 다양 마시면서 소독된다는 근거 없는 생각으로 이 가을에 폭주를 당연시할까 모르지만 식중독균은 다량의 알코올로 견디어낼 수 있을 것을 기억해길 바란다.

어느 재벌기업은 ‘주포’, ‘원포’, ‘사발주’ 등 폭음문화를 없애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임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119 음주주침’ 즉 한 가지 술로 1차에서 끝내고 오후 9시 이전에 귀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깊어가는 이 가을 편히 멜로드라마 주인공처럼 우울해하면서 술에 취해 있지 말고 국화향기에 취하는 가을을 맞이하자.

〈광주시 식품안전과장〉

명품 가격올리기 경쟁에 한국소비자들은 ‘봉’

이 부끄럼기 짓이 없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인들은 해외에서만 봉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명품업체의 봉이라고 한다. 유럽 유명 브랜드 업체들은 유럽과 미국에서 300만원대에 팔고 있는 핸드백 제품을 한국에선 400만원도 넘게 판매하고 있다. EU와 FTA가 발효되면서 수입관세가 철폐됐지만 명품 브랜드의 국내 판매 가격은 오히려 더 오른 게 대

표적인 사례이다. 오히려 명품 업체들은 같은 디자인 제품을 신상품으로 포장해 가격을 더 올리기 경쟁을 하고 있다.

소위 국내 명품 가게 판매 원리는 값이 비싸도록 더 잘 팔린다는 것이다. 1000만원대 핸드백을 사겠다는 예약 대기자 명단이 1000여 명에 이르고, 요즘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을 거리에서 3초마다 한 번 또는 5초마다 한 번씩 볼 수 있다고 해서 ‘3초 봉’, ‘5초 봉’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자기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명품 소비에 빠져들어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대부업체를 찾아가는 20~30대 젊은

이도 적지 않다. 도저히 명품을 살 형편이 안 되면 ‘꺽통 명품’이라고 불고 있다. 여기다 재벌 기업 총수의 딸들까지 나서서 자기 브랜드 제품을 키우기보다는 해외 명품 판매 점포 면적을 늘리며 명품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과 명품 제조 회사들은 겉으로는 한국 명품족들을 최고의 구매고객이라고 추켜 세우며 돈을 긁어 모으지만, 속으로는 ‘정말 한심한 봉’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말 우리나라 부유층, 그리고 명품에 목을 매는 일부 소비층들, 제발 분수를 알고 살자. ▲임광복·광주시 남구 구소동

시설

특혜 논란 ‘어등산골프장’ 허가 재고하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어등산골프장의 개장은 있을 수 없다고 봄을 밟았음에도 사업자의 자금난 등을 이유로 골프장만 우선 개장토록 한 것은 상식이 아닌 일이다.

지역민들은 “시민의 휴식공간과 골프장을 동시에 개장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개인기업의 ‘돈벌이 수단’인 골프장만 우선 개장토록 한 광주시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 내 구의원들도 조만간 ‘어등산골프장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강운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주민과의 약속을 무시한 행정사례인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는 의지다.

우리는 지역민과 구의원, 시민단체의 이러한 대응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한다. 어등산 개발사업은 ‘시민을 위한 테마파크 조성’이 목적이 개인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특히 강운태 시장이 골프장만의 개장은 있을 수 없다고 봄을 밟았음에도 사업자의 자금난 등을 이유로 골프장만 우선 개장토록 한 것은 상식이 아닌 일이다.

지난 2005년 시작된 어등산 개발사업은 포병학원 사격장으로 폐허가 된 해당 지역을 디자인센터, 어린이과학체험관, 식물원, 특급호텔, 각종 체육시설 등 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며 민간부자로 추진한 사업이다. 그런데도 광주시가 지난 9월 골프장을 먼저 개장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 결정안을 그대로 수용한 건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다.

광주시는 소송과 주민소환제 등에 대한 행정력을 낭비해 아니라 골프장 사업 허가를 재고해야 한다. 아울러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와 농작물 등에 따른 인근 마을의 피해에 대해서도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중 FTA 협상 농업부문 대책 시급하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제체될 경우 배·고추 등 13개 과수·채소 품목의 10년 폐해액은 최대 12조 원으로, 한·미 FTA 농업부분 15년 폐해 추정치과 맞먹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국이라는 점에서 FTA 협상이 큰 기회일 수 있지만 농업부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으로, 농협이 폐해 추정치를 축소했다고 볼 수 있다.

농협이 조사를 통해 보고서까지 만들어 놓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게 이런 이유다. 사실상 은폐·조작을 한 셈이다.

또한 정부가 한·미, 한·중 등 FTA 폐해 최소화를 위해 축산·과수를 중심으로 24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문제는 상당수 대책이 뼈질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을 놓아가며 나눠주기식 임시방편보다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효율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먼저 심각한 폐해가 우려되는 품목을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진통을 거듭한 한·미 FTA 협상을 거울삼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지난 2010년 9월 30일자 농협경제연구소의 ‘한·중 FTA 과급 영향과 대응 방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13개 과수·채소의 폐해액이 연간 7000억~1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인 분석이다. 지난 2010년 관세 수준에서 중국산 채소류의 국내 판매가격이 국산의 37~137% 수준이나, 한·중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산 가격의 20~98%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농협은 그동안 한·중 FTA에 따른 농

無等鼓

이카루스는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만들어준 밀랍 날개를 달고 크레타 섬을 탈출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무 하늘 높이 떠오르지도 말고 너무 바다에 들어 날지도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카루스는 하늘로 떠오르자 비상에 침식한 나머지 아버지의 충고를 잊어버리고 하늘 높이 날았다. 이카루스는 태양 너머 가까이 접근했고, 밀랍 날개가 녹아내리는 바람에 바다에 추락해서 죽었다. 우주를 향한 인간의 꿈과 이카루스의 밀랍 날개는 숙명적인 관계인지도 모른다.

그리스 신화가 현실이 된 것은 1957년 10월 4일이었다. 소련이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포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면서 인류는 마침내 우주시대를 열었다.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더라도 실험할 필요는 없다. 실패하더라도 202